

완주군, 인구 10만 시대 개막

36년 만 인구 10만 회복
유희태 군수, 미래비전선포
군민의 저력 100년 향해 전진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을 달성했다.
2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만 시대 선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신규 주거단지 조성, 수소특화 국가 산업단지를 비롯한 활발한 기업유치로 꾸준한 인구 상승곡선을 그려온 완주군은 27일자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을 기록했다. 36년 만에 10만 인구 회복이다.

이에 완주군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를 새 비전으로 세우고, '경제, 산업, 인구, 문화, 교통, 주거' 등 다각적인 '완주' 실현에 나선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 달성은 위대한 전진의 시작"이라며 "완주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도시, 산업, 삶, 균형의 전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는 2022년부터 두드러졌다.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매월 평균 260여 명이 늘었다.

2023년 인구 통계에서는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 1위(5,405명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인구 100명당 순유입률은 2022년 2.3% 대비 4.0% 상승한 6.3%를 기록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 27일 기준 완주군이 36년 만에 인구 10만 명을 회복했다. 유희태 군수와 유익식 의장 등이 군청 내 설치된 인구현황 전광판 앞에서 인구 10만명 돌파를 손으로 가리키며 기념하고 있다. <사진=완주군>

특히,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구증가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21곳에 불과한 데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으로 확대해도 완주군과 광양시 뿐이다.

2023년도도 삼봉지구,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등 신규 주거단지의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다. 완주군은 주거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발히 유치되면서 테크노밸리 2산단이 완판을 앞두고며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및 돌봄지원 사업 확대, 청년의 창업·일자리, 주거 지원 확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일자리사업, 맞춤형 돌봄, 교육 정책을 강화한 것이 인구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10만 시대에 발맞춰 ▲도시성장 가속화 ▲경제성장 고도화 ▲행복성장 지속화 ▲읍면성장 특성화 등 4대 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한다.

도시성장 가속화를 위해 삼례·봉동·용진 등의 도시 연담화를 통해 도시성장의 중심축을 구축하고, 삼봉2지구 조기조성과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전주 예코시티 연결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하고, 도시계획재편을 통해 전북 4대 도시 도약과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주형 인구정책,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성장 지속화를 통해 2035년까지 전국 군 단위 1인당 GRDP 1위를 목표로 수소산업 고도화, 신규 산단 조성, 제조업의 AI 첨단산업 전환을 추진한다. 방위산업·AI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공모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또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 한국수소기술원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인구 10만 달성은 완주의 저력이며,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미래 100년을 향해, 군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전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주=김명곤기자

전북형 'RE100 정책 방향·기업 지원' 논의 본격화

대선 공약 따른 정책 방향
에너지 '자산지소' 모델 전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RE100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다목적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에너지정책분과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업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 발표에 따른 전북 에너지정책 방향 △지역생산-지역소비(자산지소) 실현방안 △RE100 참여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등 전북형 에너지전환 핵심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최근 주요 대선공약으로 재부상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역할과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력계통 포화,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 기존 문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에너지정책분과 내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소분과를 신설해 금융, 탄소중립, 인증제도, 지속가능협의회(지속협) 등과의 연계를 구체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에너지전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형 RE100 정책 모델을 구체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전북자치도는 RE100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제13회 자연사랑·자연보호 전북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에게 그림을 장려하고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서 안정과 사회성 형성은 물론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관계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공모 기한 :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 △ 공모 부문 : 그림(만화 포함)
- △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 △ 입상자 시상 : 2025년 9월 13일(토)
- △ 참가 대상 :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중·고학생
- △ 작품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 △ 용지 규격 : 8절지 크기(B4 용지)
-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위원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의회위원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 △ 접수처 :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전북동) 5층 전북타임스 본사. 문의 (063)282-9601, 9604
- △ 주최 : 전북타임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전주대-호원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오는 9월 10개 대학 최종 선정
K-Life 캠퍼스 지역·세계 연결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2025년 글로벌대학에 예비지정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선정된 25개 대학이 제출한 18개 혁신기획서에 전주대·호원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최종 지정은 본지정 평가를 거쳐 총 10개 대학이 9월에 선정된다. 최종 지정된 대학은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주대·호원대 연합 체제로 이번 사업에 도전한 전주대와 호원대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Gateway, K-Life Campus 실현'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모두가 찾아오는 캠퍼스 △실무

가 완성되는 캠퍼스 △성과가 지역으로 순환되는 캠퍼스 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양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K-Food △K-Contents △K-Wellness △K-Tech 등 4대 분야의 실습과 창업이 통합된 체험형 실습공간인 K-Life STARdium을 중심으로 캠퍼스를 재구조화한다.

이 공간은 전주대 랜드마크인 25,000㎡ 규모의 스타센터 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어 오픈형 실습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학교기업과 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Edu-Enterprise Learning Model'을 도입한다.

<5면에서 계속>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전북타임스신문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JBT

이재명 48% 김문수 35% 이준석 11%

한국궤멸 후보 지도도 조사 이재명 다자-양자대결서 압도적 선두 유지

[한국궤멸]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및 양자 대결에서 모두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7일 [한국궤멸]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1%,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였다.

이는 한국궤멸이 지난 3일과 4일에 실시한 다자 대결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후보 단일화 파동 이후 단일화된 김문수 후보가 33%로 2%포인트 올랐고, 이준석 후보는 9%로 2%포인트가 올랐다.

지역별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46%)과 인천·경기(52%) 등 수도권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정권 결정의 바로미터로 알려진 충청권(49%)에서도 과반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호남에선 79%를 기록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TK, 49%)과 부산·울산·경남(PK, 47%) 등 영남에서만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로 인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로 김문수 후보의 42%에 비해 10%포인트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51%로 이준석 후보의 40%에 비해 1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 57%로 김문수 후보 26%, 이준석 후보 12%에 비해 크게 앞섰다.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61%

로 김문수 후보의 34%, 이재명 후보는 58%로 이준석 후보의 35%에 비해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5%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다 12%, 모름은 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4.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김윤덕 “선관위, 국민 사전투표 참여 점검해야”

평일 진행 투표소 증설 등 직장인 배려 촉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많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증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당 총괄본부 장단 회의에서 “사전투표가 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와 달리 평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께서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규모 산단 직장인

들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고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면서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며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침수 취약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2030년까지 국비 7,371억 투입 61개 지구·8,270ha 배수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농경지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도의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7,3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61개 지구, 8,270ha의 침수 취약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총배수장 22개소, 배수로 248km, 배수문 94개소 등 필수 배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신설·정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7개 지구 2,039ha는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로 선

정해, 현재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세부설계를 추진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 강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신설 △흙 배수로 콘크리트화 등 농경지 전반 배수처리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난 2019년 501억 원, 지난 2022년 641억 원에 이어 올해 92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배수장 7개소, 배수문 20개소, 배수로 47km 등 배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는 우기에 대비해 도내 농업용 배수장 92개소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쳤고, 전기·기계 설비 오작동 여부 등을 사전에 정비 완료했다.

또 통수 흐름이 지연되는 배수로 400km 구간에 대해 준설 작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배수개선사업이 2030



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려워,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배수장과 배수로의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위기가구 예방·개선 전수조사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 급여가 중지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 절차를 점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돼 있고 긴급복지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례관리, 민간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를 통해 위기가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27일 도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민간지원 연계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상호 존중·갑질 근절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27일 ‘상호 존중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청사 1층에서 출근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부당한 지시, 청탁, 위계 갑질 등의 관행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갑질 행위에 상징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갑질 타파 에어백 타격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갑질’ 문구가 적힌 에어백을 힘껏 타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구성원 간 자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 캠페인은 전북자치도가 매월 11일

날 운영 중인 ‘상호존중의 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상호존중의 날’은 △부당지시 하지 않기 △감사·칭찬 말하기 △존댓말 사용 등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제도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캠페인 현장에서 “청렴한 조직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갑질을 방지하고 상호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선 지난 2월, 전문 심리학 강사를 초청해 조직 내 심리적 안전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예방 특별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 96.2

전월보다 8.4p 상승

전북지역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6.2로 전월(87.8)보다 8.4p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지수(CSI) 주요 지수는 현재생활형편(83→87), 생활형편전망(85→91), 가계수입전망(90→96), 소비자출전망(100→103), 현재경기판단(51→60), 향후경기전망(69→86) 모두 전월보다 상승으로 집계됐다.

여타지수는 취업기회전망(71→86), 가계저축전망(86→93), 임금수준전망(113→118)은 전월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금리수준전망(93→91), 가계부채전망(100→99), 주택가격전망(114→113)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전북지역 소비자 현재생활형편CSI(83→87), 생활형편전망CSI(85→91), 가계수입전망CSI(90→96), 소비자출전망CSI(100→103) 모두 전월 대비 상승으로 확인됐다.

지출항목별로는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비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의료·보건비, 주거비는 전월보다 내림세다.

/김영태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2030세대 투표 독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용혜인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SNS 릴스 영상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2030선거 본부와 함께 영상에 참여해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2030선거본부는 지난 5월 22일 전북대학교에서 1차 ‘안심키가 프로젝트’를 실시한 데 이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전주대학교 축제에서도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활동을 통해 청년 유권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동시에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재근 기자

미래를 지키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1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2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하기

3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하기

4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5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6 친환경 상품,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7 종이 라벨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8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9 컴퓨터 절전기능 사용하기

10 종이청구서 대신 전자영수증 받기

10년 맞은 전주국가유산야행... “역사 축제로”

6월 6~7일 한옥마을 등
7개 공간서 프로그램 진행
완성도 높여 규모 확대

전주문화유산야행이 10년째를 맞아 올해 축제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조선 왕조와 후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천년고도 전주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불을 밝힐 계획이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과 경자전, 풍남문, 전라감영 등 7개의 역사적인 공간에서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10주년인 전주야행은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4개 공간에서 풍패지관과 오목대, 전주향교를 포함해 축제 공간을 넓히고, 조선의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가 후백제가 건국된 900년까지 다루며 역사의 범위를 확장해 더욱 깊이 있는 전주의 역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9개의 신설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이고, 기존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의 수요에 맞게 개편되는 등 완성도 높은 축제의 장이 꾸며질 예정이다.

총 8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이번 야행의 핵심 프로그램은 △견훤대왕배 씨름대회 △주제공연 ‘왕도를 만나다’를 꼽을 수 있다. 이번 야행에서는 씨름대회와 주제공연이 유기적으로 펼쳐지며, 민속놀이 및 공연예술에 역사적 상상력을 접목해 전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역사 활용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후삼국 시대를 뒤흔든 견훤 대왕의 기세를 계승하고, 과거 명절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관승부를 벌이던 정겨운 풍경을 재현한 견훤대왕배 씨름대회는 시민참여로 진행돼 축제의 흥을 돋울 계획이다.

또한 주제공연인 ‘왕도를 만나다’의 경우 씨름대회의 전개에 따라 후백제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이 중간중간 펼쳐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씨름대회에 서사를 더하는 것뿐 아니라 민속놀이와 공연예술을 접목해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망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야행에서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행사장 일원) △객사야담(풍패지관) △향교괴담(작전명 베끼리/전주향교) △전라관찰사의 탄생(전라감영) 등 공간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객사야담’은 오랜 시간 풍패지관을



전주문화유산야행이 10년째를 맞아 올해 축제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조선왕조와 후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천년고도 전주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불을 밝힐 계획이다.

지켜온 가택신(家宅神)으로부터 듣는 전주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으로, 가택신으로 변신한 배우들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변천사를 생생하고 재밌게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향교에서 펼쳐지는 ‘향교괴담’은 기존 숭바꼭질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향교의 정체성을 소개하며, 1884년 조지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촬영한 사진 속 인물들을 재해석해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일상을 재현한 콘텐츠인 ‘전라관찰사의 탄생’ 프로그램에서는 추리극과 조선시대 직업 체험, 전통놀이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전주국가유산야행 관계자는 “전주야행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전주의 다채로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청년의 눈으로 새로운 촬영지 찾는다

제1회 청년 솟품 공모전
6월 16~30일 응모작 접수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서 매력을 가진 새로운 촬영 명소 발굴에 나섰다.

전주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SPOT IN JEONJU 청년 솟품 공모전’에 참가할 응모작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영화

의 도시이자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참신한 로케이션을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부문은 △전주시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재치 있게 홍보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솟품 영상 △각종 영상물 촬영 배경으로 적합한 전주시의 덜 알려진 장소를 소개하는 솟품 영상 등 두 가지 분야이며, 영상물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

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1팀(또는 개인)당 최대 2편의 작품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영상위원회 누리집(www.jjfc.go.kr)에 게시된 공모 요강을 참고해 영상 파일과 제출 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는 주제 적합성과 완성도, 창의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8편의 수상

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에는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100만 원 △우수상(5편) 각 40만 원 △장려상(10편) 각 2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전주의 로케이션 자원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단속 합동단속

직영 환경관리원 북부점검
공직기강 확립·병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행락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한 북부 점검 실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예코시티상가·서부신시가지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탄핵정국 및 장미대선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행락철 맞이 환경정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직영권역 환경관리원 가로원에 대한 북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북부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 △안전복 미착용 등이 확인된 환경관리원 7명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다.

또한 전주시는 직영권역과 대행권역의 취약지 등을 점검해 청소 수행 상태가 미흡한 장소 80여 곳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정리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대행권역 등의 취약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배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불법투기로 인한 거리 환경의 악화를 막고, 만연한 불법투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전시민경찰연합회(회장 성완오)와 함께 덕진구 예코시티 상가 일대와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경찰연합회와 같은 시민들이 앞장서준다면 전주시 도심 환경 문제 개선에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전주시의 불법투기 취약지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다가오는 여름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선관위, 어린이 선거벽보 전시회 개최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엄마·아빠 투표해요’라는 주제로 어린이 선거벽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북선관위 선거거홍보관에 방문한 유치원생들이 선거와 관련한 체험을 하면서 ‘내

가 꿈꾸는 대통령’, ‘투표참여의 중요성’ 등의 메시지를 담아 그린 ‘나만의 선거벽보’ 3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회 첫날인 5월 27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어린이집 원생들이 방문해 작품을 관람하고 포토부스 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품 전시회는 6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돌입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활용
매개체 방제사업 전개

전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 해충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위생해충의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소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는 예년보다 이른 뒤늦게 인해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하천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하절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펼쳐왔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는 34개 동에 동 방역반 45명을 배치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와 시민 생활권 주변 모기 서식지 등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계

획이다.

또한 방역소독차량 10대를 9개 권역, 28개 코스로 편성해 대단위 아파트 주변과 도심 내 하천, 공원, 산책로 등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 8대를 도심공원과 한옥마을 등에 본격 투입해 수집된 모기 밀도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DMS 장비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산화탄소를 분출해 환경 30m 내 모기를 유인·포집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 모기의 밀도를 감시할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DMS 장비로 수집한 모기 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제 장소와 시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역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하절기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안전체험 부스’ 호응

전주대 대동제 기간 다양한
소방활동 기회 제공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7일 전주대학교 축제 ‘대동제’ 기간 운영된 ‘소방안전체험 부스’가 학생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 부스는 전주완산소방서와 전주대학교 대학생전문융소방대, 소방안전공학과 내 동아리인 FIST가 함께 협업해, 재학생 및 대동제를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실제 소방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매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 △배근력, 약력, 좌전굴 측정 등 소방 체력 측정 체험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시민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방 활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소방 안전 홍보에 나서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이번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안전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양파 수급 안정 ‘선제적 대응’

양파 수급관리 협의회 개최 단계·시기별 주요 현안 논의 수급 안정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양파의 가격 급등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전북자치도는 NH농협 전북지역 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전북 양파 수급 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내 주요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파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양파 수급관리 협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발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지난해 행정·유통·생산자·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기구다.

이번 회의의 큰 의미로는 생산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노지채소인 양파는 작황과 재배면적에 따라 생산량이 급변하고, 그에 따른 가격 변동성도 심한 품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생산자 주도의 ‘적정 재배면적 조절’과 ‘기계화 확대’, ‘생육관리 체계화’를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수급조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광역단위 수급관리 협의회를 통해 재배면적 조절, 유통안정 대책, 가격 급변 대응 시나리오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계화 확대는 농촌 고령화 해법과도 맞물려 도가 강하게 추진 중인 분야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확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양파의 가격 급등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나섰다.

정재관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양파와 같은 노지채소는 수급조절이 늦어지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폭락해 농가에 큰 타격을 준다”며 “생산자 중심

의 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봄철 누에씨 ‘때맞춰 보급’

6개 시군 168상자 보급 완료 안정적 기반 마련 농가 만족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이 최근 이상기상에 따른 뽕나무 생육 저하 등으로 누에 사육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도내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보급누에씨 168상자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사육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공급된 품종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원누에씨로부터 전북농기원 잠사곤충시험장에서 교배·증식한 보급종인 ‘백옥잠’으로, 고치 광택과 형태가 우수하고 병 저항성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봄철 단기 사육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이다.

보급누에씨는 운송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분산 공급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잠사곤충시험장을

통해 정읍·고창·부안 지역 20농가에 총 159상자, 전북도청 북2문을 통해 순창·익산·진안 4농가에 9상자 등, 총 24농가에 168상자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된 보급누에씨는 적기 공급으로 지난 13일에는 164상자를 조기 공급했다.

전북농기원은 이번 공급과 함께 농가별 사육 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생육 안정화 요령, 기상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하며 사육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올해는 봄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뽕나무 생육 부진 등으로 사육 여건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 수요조사와 맞춤형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농가의 사육 일정을 고려해 차질없이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문호 종자사업소 소장은 “병이 없고



전북농업기술원은 도내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보급누에씨 168상자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사육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우량한 보급누에씨를 양잠농가의 사육 일정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은 누에 사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양잠농가의 뽕나무 생육상황

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공급으로 농가의 안정적 사육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산림분야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산림행정 종합평가 인정 현장점검 등 정책 추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산림정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에서 광역·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산불 예방 성과 △병해충 방제율 △목재 이용 활성화 △임도시설 실적률 등 산림행정 전반을 종합 평가했다.

도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산림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수여

받는다.

이번 성과는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현장 확인이 병행됐다.

또 산불 예방과 숲가꾸기 분야에서는 자체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결과로 평가된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산림정책을 펼쳐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씨없는수박 조기 출하 최준열 원장 정읍 임암면 현장 점검

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불임꽃가루 기술 활용 재배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최준열 원장은 26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임꽃가루를 활용해 씨 없는 수박을 조기 출하하는 정읍시 임암면 일대 수박재배농가를 방문해 생산현황 파악 활동을 전개하고 격려했다.

이번 현장행정에서는 소비자 수요 증가에 대응한 씨 없는 수박의 생산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재배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씨 없는 수박은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먹기 편리하고 가공 활용성이 높아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저온기의

씨 없는 수박은 불임꽃가루를 활용한 조기출하 기술로 재배되며 당도는 11~13브릭스, 무게는 7~8kg 정도로 품질이 우수해 일반 수박에 비해 10~20%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고 있는 최고농업기술 수박 1호 명인 이석빈 농민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기술지원 덕분에 씨 없는 수박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수박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씨 없는 수박은 전북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불임꽃가루의 국산화 연구를 가속화해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더불어 현장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은행, 법인고객 대상 예·적금 계좌개설 비대면 오픈

최고 연 3.00% 금리 적용 정기예금·적금 모두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법인고객 대상 금융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예·적금 계좌개설에 대한 비대면 채널을 오픈하며 JB법인 주거래 예금 및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 방문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가입해야 했던 법인고객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JB법인 주거래 예금’의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가입 금액 1백만원 이상 50억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00%~2.15%로 최고 연 2.5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과거 6개월간 정기예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 JB기업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충족 시 0.10%, 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0.20% 등 최고 연 0.4%가 제공된다.

‘JB법인 주거래 적금’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로 기본 금리는 연 2.15%~2.60%에 최고 연 3.0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과거 6개월간 적립성 상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0%, JB기업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충족 시 0.10%,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조건 충족 시 0.20% 등 최고 연 0.4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마련을 통해 법인고객의 금융업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공급망 ESG 대응전략’ 교육

중소기업 ESG 전략 공유 공급망 규제 대응 역량 제고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ESG 대응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등 ESG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크레더블 김영동 선임이 강사로 나서 △ESG 경영의 개요 및 필요성 △공급망 ESG 현황 및 기업 대응 전략 △환경·안전보건·사회·지배구조 이슈 대응 방안 △ESG 평가

지표 등을 설명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도 주체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 K-에듀 기업 메타비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메타비티, 외국인 고객 특화 협약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분석·상품 개발 등 협력 확대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K-에듀 기업 메타비티(대표이사 변원섭)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고객 위한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양사의 동남아 현지 기반 네트워크가 전북은행의 포용적 금융 전략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이 외국인 고객의 실생활에 밀착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외국인전략본부 정성훈 사장은 공동 마케팅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수요 및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특화 상품 개발 등 실질적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포

용적 금융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메타비티 변원섭 대표이사는 “당사의 동남아 현지 기반 네트워크가 전북은행의 포용적 금융 전략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이 외국인 고객의 실생활에 밀착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외국인전략본부 정성훈 사장은 공동 마케팅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수요 및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특화 상품 개발 등 실질적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포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생분해 멀칭필름 개발 박차

재배지 적용성 현장 점검 농업용 플라스틱 대체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내구성과 생분해도를 높은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시험 재배지에 적용해 성능을 평가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혜선 농업생물부장은 (주)알앤에프케미칼, (주)일신하이폴리 등 필름 생산 산업체 관계자,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27일 전남 영광에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적용 시험 재배지를 방문했다.

방혜선 부장은 이날 시제품 3종의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또 품질 개선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부장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농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성과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사용 후 토양에 묻으면 수년 이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되는 제품이다. 사용 후 수거하는 노동력이 드는 폴리에틸렌 필름보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5% 수준이다. 하지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부담을 주는 플라스틱을 해결하려는 국제 동향에 힘입어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판 중인 생분해성 멀칭필름에는 내구성 유지를 위해 생분해되지 어려운 물질이 일부 포함되기도 한다. 몇몇 농가에서 작물 재배 기간 중 필름이 빠르게 분해되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투입 원료, 구조를 변경하고 내구성과 생분해도가 향상된 필름을 개발 중이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 이학수 “민주주의, 참여로 완성”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 캠페인을 전개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민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이 참여해 제1고사거리 등 3개 다중이용 장소에서 ‘투표합시다!’ 피켓을 들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우리 정읍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참여”라며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강임준 시장은 김기웅 서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강임준 시장은 “투표는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시장은 다음 주자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지목하며 캠페인 참여를 이어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4기 기초 과정 교육 운영

정읍시가 주민 주도형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기 기초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핵심 실행 주체 ‘핵심그룹’ 참여자도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주민 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아카데미 형식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은 △사업 개요 △운영 전략 △아이디어 발굴 △연계사업 사례 △지역 활성화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수료자에게는 향후 단계별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1단계 테스트베드부터 3단계 실행사업비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통해 실제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신활력사업의 현장 실행을 담당할 ‘핵심그룹’도 함께 모집 중이다. 핵심그룹은 정읍의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소모임 또는 단체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의 중심이 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개인, 공동체 활동 경험에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도시통합센터 7월 개소, 도심 ‘한눈에’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스마트시티 구축 첫걸음

군산시가 오는 7월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 도시통합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총 23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다. 시는 지난 2023년으로부터 2025년 6월까지 도시통합센터를 포함한 21개의 과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는 121억(통합센터 건축비 23억 포함)에 달한다.

도시통합센터 개소는 군산시의 미래비전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은 교통 상황, 대기질, 침수 정보 등



군산시 도시통합센터 조감도

<사진=군산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는 도시통합센터에서 군산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도시통합센터 개소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제반을 더욱 확장하게 된 한편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 안전, 환경, 생활편의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산업단지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완성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구절초 짚와이어, 27일 개장

하늘길 따라 짜릿한 비행

정읍시가 자연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 레포츠 시설 ‘구절초 짚와이어’를 27일 개장한다.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이하 ‘구절초 짚와이어’)는 구절초 지방정원의 출렁다리를 건너 부치봉 산책로를 따라 오르며 도차하게 되는 공중 레포츠 시설로, 관광객이 한눈에 정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림형 체험 명소다.

짚와이어는 부치봉 정상에서 출발해 구절초 정원과 투명한 물줄기의 주렁쨈을 내려다보며 550m 구간을 활강하게 된다. 평균 경사율 9.9%로 구성된 2개 라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4000여 명이 체험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

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이며, 정읍시민과 축제 기간 유료 입장객은 2000원이 감면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중앙부처 행정

강영석 부시장 산림청 등 방문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요청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27일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산림청 김석문 산지정책과장을 만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석재산업 지원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익산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연구 개발 거점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기관 설립으로 석재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설계 용역에 필요한 국가예산 1억 7,400만 원을 요청했다.

익산의 천만 관광 시대를 견인할 지역 역사·문화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강 부시장은 국가유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윤수 고도보존육성팀장에게

문화유산 보존 및 고도(古都)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들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주요 사업으로 △백제왕궁 금마역 역사문화공간 조성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등 핵심 문화유산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시는 정부의 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지권 등 공조 가능한 지역 역량을 결집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도입

수급 중지 가구 전수조사

익산시가 위기가구를 위한 장기 맞춤형 복지 대응체계를 새롭게 가동한다.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선제적·지속적 대응 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전수 조

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향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 역시 동일하게 관리 체계에 포함한다. 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이로써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끊기지 않는 복지망을 구축한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행복자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시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운영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풀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방정부 인공지능 혁신대상 본상

시민 안전·편의 시로 혁신

군산시는 ‘2025년 제1회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대상’ 사회안전분야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아주경제가 주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대상’은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 기반 정책·시책, 경쟁력 제고·행정 혁신에 노력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는 광역 및 전국 지자체에서 1차 총 45건(사회·안전분야 15건)이 선정됐으며 최종 6개 분야 1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선정됐다. 군산시는 ‘사회안전분야에 ‘지능형 인공지능(AI) 융복합 CCTV 선별 관제시스템’으로 공모 신청하여 본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상을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 직후 김 부시장은 “지능형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 기반 정책·시책, 경쟁력 제고·행정 혁신에 노력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는 광역 및 전국 지자체에서 1차 총 45건(사회·안전분야 15건)이 선정됐으며 최종 6개 분야 1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중장년 창업 현장 격려 나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방문

익산시가 중장년 기술창업자들과 소통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27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를 방문해 성과를 확인하고, 입주기업과 창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현울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중장년이 가진 경험과 기술력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익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제공, 정부지원 연계, 교육 등을 통해 매년 10여 건의 신규 창업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울 시장은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기술력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KBS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개최

군산시는 K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내달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공개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기성 가수를 제외한 군산시민 및 군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등 선착순 300팀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군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예선은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군산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예선을 거쳐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8일 본선 녹화 당일에는 약 3,5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로 예상되며 남희석 MC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김성환, 임현정, 강혜연, 박군, 홍지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탐마루 수박 판로 확대 박차

온라인 판매 등 판로 다변화

익산시가 고품질을 자랑하는 ‘탐마루 수박’의 출하에 맞춰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 탐마루 수박 연매출 약 8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망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탐마루 수박은 금강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망성·용안·용동면 지역을 중심으로 연 2기 작 체제로 재배되고 있다. 1기작은 4

월 초기 출하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2기작은 7월 중순 출하된다.

특히 참박 점포 기법 등 고품질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당도와 식감, 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는 수도권 현대백화점에서 시식·할인행사를 열어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달부터는 네이버·카카오·농협몰 등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탐마루 쇼펄몰을 통해 수박을 포함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역~새만금33센터 시내버스 운행

6월4일부터 102번 버스
신규 운영 1일 편도 6회 운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그동안 대중교통의 불모지였던 새만금33센터까지 시내버스를 신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부터(첫차, 김제역 오전 7시 20분 출발) 김제역에서 새만금 33센터까지 102번 시내버스를 신규 운행한다.

102번 시내버스는 지난 26일부터 일정 기간의 시범운행을 거쳐 6월 중 정식 운행할 계획이며, 운행 노선은 김제역을 출발해 터미널~전통시장~지평선산단~만경읍~진봉면~새만금동서도로~새만금 33센터(무궁화공원)까지 1일 편도 6회(왕복 3회) 운행한다.

102번 시내버스의 자세한 운행 정보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102번 시내버스 신설 운행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33센터까지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김제 시내권에서 새만금 지역으로



김제시가 그동안 대중교통의 불모지였던 새만금33센터까지 시내버스를 신규 운영한다. <사진=김제시>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중교통의 불모지였던 새만금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이용해 새만금33센터까지

운행하는 이번 102번 시내버스를 계기로,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수변도시가 완공되면 대중교통을 우선 투입하는 등 교통 소외 지역이 없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지리적 표시 명품 고창수박’ 수확 시작

지난해 공식 브랜드 등록
올해부터 공식 판매

고창군이 27일 오후 성내면 이후극 농가에서 올해 수박 수확 행사를 진행하며 ‘2025년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수확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첫 수확된 수박은 ‘지리적표시제’ 마크를 단 명품 수박으로 공식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일, 고창수박은 국가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되며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리적표시제도 덕분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수박만 명품 ‘고창수박’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함부로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번 지리적표시제 시행을 통해 고창 수박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농가소득이 증가될 전망이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의 대표 농산물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 명품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수박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겠다”며,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수박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려 농가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례·시행규칙 개정
투자금액·고용기준 완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외 기업에 관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00억원에

서 10억원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제시를 제외한 도내 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억 초과 투자액의 5%에서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지원하게된다.

이는 관내기업이 김제시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제시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상감X부안감상’ 2만 6천여명 참여 성료

일상 속 공예 향유·공예품
판로 개척 목표 실현

2025 공예주간 거점도시 부안의 ‘부안상감X부안감상’이 부안청차박물관과 부안 곳곳에서 펼쳐지며 열흘간 총 2만 6000여명이 참여하는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예주간은 상감청자와 지역 공예문화의 매력을 대중과 공유하고 일상 속 공예 향유와 공예품의 판로 개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지역 공예작가들은 공예주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관람객들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공예를 일상 속에서 즐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5 공예주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전통가마 소성 프로그램은 단연 가장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부안의 도예가들이 직접 참여해 장작가마에서 청자를 포함 다양한 도자기를 소성하는 과정을 공개했으며 이를



지켜본 관람객들은 불과 흙이 만들어내는 전통 도자 예술의 진면목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안은 고려청자 생산지 중에서도 특히 ‘상감 기법’의 본고장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단순한 기물의 아름다움을 넘어 문양과 기법에 있어 높은 예술성과 기술적 정교함을 지닌 청자가 바로 부안 청자의 특징이다.

이번 공예주간은 전통 상감기법을 기

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공예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예주간의 운영을 맡은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자를 비롯한 공예가 삶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통해 지역 예술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예인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부안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공예주간을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서울→고창행 환승 불편 해소된다

30일부터 온라인·현장발권

서울 센트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창터미널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이용관련, 정안휴게소에서 고창행 온라인 예매 및 현장발권이 가능해진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고창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정안휴게소에서 환승이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전 고창행 발권과 예약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탑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안휴게소에서 버스 좌석이 매진되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환승 체계 개선을 건의해

왔고, 최근 “온라인 및 현장 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서울→고창 시외버스의 정안휴게소 환승 관련 온라인 예매(티머니GO 어플)로 탑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외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운행 중이며, 서울에서 고창까지 운행 시간은 약 3시간 10분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공직사회 건전성 제고 갑질 예방 교육

부안군은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보는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갑질 금지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김종호 강사가 진행했으며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공직자가 일상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직윤리 역

량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되는 부적절한 지시나 권한 남용과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장 내 위계에 의한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중심 교육에 중점을 뒀다.

권익헌 군수는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서로 간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 ‘경계 존중’을 인식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 정책 협약

국가보훈대상자여우강화
고창출신 신중주 지사묘소 참배

고창군이 27일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장효정)과 함께 일상 속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운동가 묘소를 참배했다. 협약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보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인 신중주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신중주 지사는 1906년 최익현 의병

장을 찾아가 군자금과 군수품을 지원하고,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서 참모관으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고창군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서부보훈지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기획감사실, 농촌일손돕기 활동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27일, 영농철을 맞아 황산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금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황산면 진흥리 고추 농가를 찾아 고추 순치기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는 “고추 농사를 앞두고 일

손 부족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준 직원분들 덕분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

고창군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력한 환각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텃밭 등 밀경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열매는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특징이 있고, 잎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일반인의 모든 재배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바깥에 의해 양귀비 씨앗이 피쳐 텃밭이나 마당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민 대상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마약류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양귀비나 대마가 발견되면 즉시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등 방제 총력...방역관계자 안전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보건소, 읍·면·동 방역담당자 및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절기 방역소독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역 장비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희석 배수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여름철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며 방역소독반은 2개반 4명으로 편성해 매주 관내 지역을 나누어 일출 또는 일몰 시간 전후로 빈집, 하수구, 쓰레기장 및 취약지역과 주거지역, 마을길 등 위해해충 다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써주시는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으로 시민들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6월 11일까지 청년창업농 소통·공감 ‘사킴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이 매년 증가하는 청년창업농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과 공감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창군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단체인 고창군 4-H연합회가 함께 참여한다.

선배 청년농업인으로서 실질적인 농촌 정착 경험을 나누고, 지역 청년들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킴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농업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창업농의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실질적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고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인구 10만 달성 완주군, 자립의지 커졌다

완-전 통합 영향 미칠 듯 신도시·인구 성장 지속세

완주군의 인구 10만명 돌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10만명 달성은 완주군의 자립 의지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어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완주군 인구는 지난 2023년을 정점으로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 1위(5405명)로, 전북에서도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 지자체로 발돋움했다.

이처럼 완주군의 인구 증가 요인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무래도 완주지역 공단 조성 및 기업체 입주에 따른 배후도시의 성장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 혁신도시의 성장도 도시팽창에 한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22년 92,422명 ▲2023년 97,827명 ▲2024년 99,279명 ▲2025년 현재 100,005명으로 해마다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어 왔다. 당연히 도시성장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으며 삼례·봉동·용진이 3축을 구축하면서 신규 아파트단지도 속속 입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뒤늦게 삼봉신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완주산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입주가 증가해 조기 분양되었을 뿐 아



유희태 군수는 27일 기자회견서 완주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완주군>

니라 인구유입의 증가해 또다시 삼봉 2지구 조기 조성과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완주군의 인구유입은 여기서 멈출 기세가 아니다. 전주 예코시티 연결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하고, 도시계획이 재편되면 전북 4대 도시 도약과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완주형 인구정책, 관광 콘텐츠 확충,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활인구 유입도 적극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경제성장 지속화를 통해 2035년까지 전국 군 단위 1인당 GRDP(지역총생산)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산업 고도화

와 함께 신규 국가·일반산단을 추가 조성하고, 기존 제조업은 AI 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산업과 AI 등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번 완주군 10만명 돌파로 인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관련, 완주군민들의 자존심 회복 등으로 인한 독자생존에 대한 의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농촌협약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확대 계획 등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꾀하며,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상하수도 등 생활 SOC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양지천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

봄꽃 호응 이어 가을꽃 식재 음악분수 등 문화·휴식 확대

지난 4월 봄꽃으로 물든 순창군 양지천이 계절을 넘어 사계절 명소로 거듭난다.

군은 민선 8기 5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경전·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꽃잔디와 수선화, 튼lips이 장관을 이뤘던 양지천 산책로에 어울림부터 가을까지 또 한 번의 꽃길을 조성하며 '사계절 꽃길' 만들기애 나섰다.

그동안 봄꽃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벚꽃마련초, 황하코스모스, 일반 코스모스를 차례로 식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색다른 꽃길 풍경을 선사하고 연중 관광객이 찾는 계절형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순창군이 양지천 산책로를 '사계절 꽃길'로 가꾼다.

<사진=순창군>

또한 군은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하반기부터 경전 산책로 꽃길 조성, 양지천·경전 합류부 공원화, 야간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과 휴게 시설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향후 꽃 축제, 체험 프로그램, 사진명소, SNS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해 양지천을 '체험형 감성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기자

남원시 조공법인, 통합마케팅 ‘최우수’

전북도 평가서 최고 S등급 인센티브 포함 2.7억 확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남원시 조공법인')이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 사업비 1억 6천800만원(도비 7,390만원, 시비 4,370만원, 자부담 5,04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2억 7,800만 원(도비 12억2,300만 원, 시비 7억2,300만 원, 자부담 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예산은 농가 조직화 교육, 마케팅 지원 등 통합마케팅 기반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조공법인과 관내 5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통합조직으로도 선정돼, 향후 3년간 1.25% 금리의 자금 3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금 201억 원을 포함하면 총 233억 원 규모다. 이 자금은 농가 선지금, 계약재배 계약금, 농자재 공동구매 등 경영 안정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속적인 유통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에 힘입어 2024년 통합마케팅 매출 1,269억 원을 달성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남원 청소년 ‘청운’ 교류 활동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지리산청소년자유공간 '청운'의 청소년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활동은 서로 유사한 지역적 환경에 위치한 두 청소년 기관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며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활동은 양 기관의 청소년 대표들이 기관 소개와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청소년들이 준비한 △노래왕 △게임왕 △음식으로 말해요 등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즐기며 또래 간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이번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학부모회장단 간담회

청소년 주체활동 확대 등 논의

완주군은 27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과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완주군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완주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돌봄 정책의 내실화, 진로체험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또한, 완주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공연과 체험 중심의 행사로 기획되고 있다.

학부모회장은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학교-지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군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사, 청소년 등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섬진강미술관, 기획전

‘물로 그려낸 세계’ 선포

순창군 섬진강미술관이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소장품 기획전 '물로 그려낸 세계: 번지고, 스미고, 머물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수묵, 수채, 담채 등 '물'을 매개로 한 동서양 회화 14점을 선보이며, 물의 흐름과 감성을 통해 인간의 사유와 정서를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 제목인 '번지다, 스미다, 머물다'는 물이 닿는 자리에 남기는 감각과 흔적을 주제로, 회화의 물성이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관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출품작에는 한국화와 수채화 등 섬진강미술관이 소장 중인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장관국의 정취를 담은 「언제라도 그곳에」 여인술(2015), △자연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어느 날 ~ 풍경이 오다」 김영숙(2015) 등이 대표작으로 소개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완-전 통합 반대 입장 야당에 전달

유익식 의장, 김두관 위원장 만나 강압적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지난 26일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을 찾아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완주·전주 통합의 불합리성과 지방분권시대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통합 추진으로 인해 상처만 받는 군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유 의장은 현재 완주와 전주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지난 3차례의 걸친 통합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발생으로 상처받은 사례들을 전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추진은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 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김관영 도지사과 우범기 시장의 공약에서 촉발 되었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두관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



편은 한쪽 의견만 듣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행안부에서도 무리하기 추진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번 김두관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발전해 가는 완주군을 알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완주군이 10만 인구를 달성하면서 성장하는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만큼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 완주군의 자존심과 역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CCTV 설치 지원 마을방범 인프라 구축

마을회관 중심 신규·교체 지원 5천만원 투입, 마을별 차등

순창군이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CCTV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당 최대 100

만 원 차등 지원 방식으로 신규 설치 또는 전면 교체에 이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마을이며, 설치 장비는 200만 화소 이상의 적외선 기능 카메라 2대 이상, DVR(녹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카메라 또는 장비 교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당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5% 이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범죄 취약 지역, 주요 진출입로 등에 대한 방범 인프라를 강화해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실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년 축산악취개선 국비공모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국비 공모에 나섰다.

시는 관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개소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20억 3,100만 원 규모의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사업 외에도 시는 △공동차원

화시설 개보수사업(15억 원) 신청 및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10억 원) 신청예정 등 2건의 국비 공모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총 45억 원 규모의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남원시는 2025년에도 공모를 통해 11억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1년부터 총 49억 원을 축산악취개선에 투입해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인천공항버스 운행 5년만 재개

2020년도 코로나19로 중단

모니터링 후 배차 확대 검토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6월 4일부터 남원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그간 인근지역으로 이동해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노선은 동광양, 광양, 순천, 구례, 남원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된다. 남원에서는 일 1회 운행되며, 상행은 남원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전 1시 40분에 출발하며, 하행은 인천공항 제

1, 2터미널에서 9시에 출발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운행 재개는 남원시와 전북도, 운송업체(금호고속)가 협력해 추진됐으며, 공항버스 운행 개시 후 이용 현황과 수요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용객 수 증가 시 운행 횟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전국혁신도시 실무협의회서

공동결의 한 목소리 내기로

완주군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회의에는 11개 시군 실무진들이 참여해 혁신도시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

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국비 지원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혁신도시 발전지원기금 설치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혁신도시 공동결의'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7월 중 개최 예정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에서 정식 채택 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에 건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병수 완주군 건설도시과장은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완주군도 혁신도시 시군2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김철문 청장, 임실경찰서 방문 현장 직원 격려·치안 현황 점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임실 경찰서(서장 류관송)를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와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치안 현황을 직접 살펴 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철문 청장은 임실의 치안 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등을 점검하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김청장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및 순제적 치안 환경 진단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정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업무유공자인 수사와 박종호 순경, 오수지구대 조재민 순경, 경무과 강종민 행정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철문 전북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그 목소리에 응답해 평온한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관송 임실경찰서장은 “임실경찰서에 전북경찰청장의 현장 방문은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 응답하는 임실경찰서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내달 13일까지 귀농·귀촌인 실태 설문조사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와 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통합 수준 등을 파악하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소속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무주군은 지역 내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생활 경험과 지역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 통계화한다.

설문 세부 항목은 △귀농·귀촌 배경 및 정착 기간 △주거 및 농업활동 현황 △지역사회와의 관계 만족도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으로 결과는 정책 수립 및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협력과장은 “이번 조사는 무주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설계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김호진 주무관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장려상

진안군이 5년 연속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김호진 주무관이 발표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체납징수’ 제도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상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체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등에서 탁월한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군부 대상에 선정되며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경사도 맞았다.

진안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 개선 노력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2025 임실방문의해 ‘치즈올림픽’ 연다

11월 말까지 郡 사격장서 사격체험 이벤트 월 30명 추첨 선물 증정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을 위해 ‘치즈올림픽’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군은 사계절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몸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치즈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번 치즈올림픽의 주 종목은 청웅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이다.

참여 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이며, 임실군 외 거주자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다.

참여 조건은 임실군청 SNS 팔로우 및 구독 후, 사격장 내 10m 공기권총

사격 체험을 해 10발 109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사격장 내 비치된 배너 안의 QR 코드를 접속해 네이버 폼 양식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입 후 SNS 팔로우 인증샷과 사격접수 달성 접수관 인증 사진을 각각 1장씩 첨부하면 된다.

증정 선물은 3만원 상당의 임실 치즈·요거트 세트이며, 월 30명을 무작위 추첨해 기입된 주소지로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만 아니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천만관광 실현을 위한 특색있는 사계절 축제와 함께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 식재료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의 봄꽃 향연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도 곧 개화 시기를 맞아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다가을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가을엔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숙박비 결제액의 30% 최대 5만원까지 할인하는 숙박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생 캠퍼어, 인플루언서 임실 투어 등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이해 임실군을 찾은 외부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일자리 업무협약

道농어업·농어촌일자리 플러스센터 등 상호 협력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 장수로컬job센터, 장수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단과 함께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농어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일자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수군 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일자리 창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가 및 농식품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협업 △농어촌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장수군>

일 경험(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

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통해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품평회

마이산 몽블랑 등 5종 평가 미식 관광 자원 가능성 점검

진안군은 27일 전주시에 위치한 진안로컬푸드 호성점 앞 광장에서 ‘마이산 북부 먹거리 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해 개발된 신메뉴 5종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마이산 북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형 먹거리 콘텐츠의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을 대표할 미식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메뉴는 △돼지국밥 △마이산 꽃감 식혜 크러쉬 △흑미 파르페 △마이산 몽블랑 등 총 5종이다.

메뉴들은 진안 고원지대의 청정 자연

에서 자란 고기, 꽃감, 딸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매력까지 갖춰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시식 행사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와 맛, 기호도 등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군은 이번 품평회 결과를 토대로 신메뉴의 조리법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해당 메뉴들이 지역 상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난경 진안군 관광과장은 “이번 먹거리 콘텐츠 개발은 단순한 음식 개발을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하



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참신한 메뉴들이 진안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아 미식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황인홍 군수,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조성 총력

기재부 방문 국비 확보 요청 생태 탐방원 등 중점 설득

무주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직접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사업’ 등 무주군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예산총괄과를 비롯해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등 무주군 중점사업 예산심사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담당 심

의관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총사업비 국비 450억 원)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사업(국비 187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국비 43억 원) △설천면, 부남면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 등 핵심 현안 사업들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별 우선절과 추진 타당성을 공유하며 국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

을 요청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처별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쉽지가 않다”며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단계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국회 단계까지도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 설천면, 무인민원발급기 전면 교체

120여 종 서류 발급 가능

무주군 설천면이 행정복지센터와 구천동농협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천동농협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다. 타 지자체로부터 ‘유휴 기기 무상 대부’ 형식으로 양수받아 약 4천6백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새롭게 설치된 기기는 △점차 모니터 △음성 안내 △화면 높이 조절 △휠체어 접근 공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기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긴급출발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12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

급받을 수 있는 기능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능이 추가되면서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

박종회 무주군 설천면장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던 기기는 2014년 4월, 구천동농협은 2015년 3월에 설치됐던 것으로 노후되면서 속도가 느리고 오류발생이 잦아 주민 불편이 컸다”라며 “좋은 기회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촌유학활성화 방안 집중논의

**농촌유학협의회 개최
지원 정책·제도 점검**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27일 군청상황실에서 2025년 진안군 농촌유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의 농촌유학 지원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 농촌유학협의회는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해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계획과 거주시설 운영지침에 대해 심의했으며 진안군 농촌유학 현황에 대한 설명과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현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맛보기캠프,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모여 농촌유학에 대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귀면에는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총 1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이 시설은 부귀초등학교의 활성화와 농촌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청소년참여기구 역량강화워크숍

청소년운영위원회·동아리 등 총 25명 청소년 참여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2025 청소년참여기구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총 25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자치활동의 출발을 함께했다.

워크숍은 △참여기구 위촉장 수여식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민

주제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장수YMCA 이재명 청소년활동가가 진행한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참여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쉽게 풀어내 큰 반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군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앞장

임실군이 이달부터 교통 분야 과액·상승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한다.

3월에서 4월까지 번호판 영치 실시 현수막 개점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5월부터 합동 영치반을 편성에 연중 과태료 체

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영치증을 교부한 후 해당 체납자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때에 한해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인천제일고 김계홍 이사장, 고창 고창군에 3년간 기부 실천

고창 출신인 인천제일고등학교 김계홍 이사장이 3년간(2023~2025년) 고창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며 고창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계홍 이사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고창인 고창에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 특히 3년에 걸쳐 총 300만 원을 기부한 이번 사례는 지속적인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계홍 이사장은 “고향인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약소하지만 힘을 보태기 위해 고창사랑 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LH삼봉사회복지관, 지역 주민과 힐링 나들이

완주군 LH삼봉사회복지관(관장 임평화)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를 다녀왔다. 27일 LH삼봉사회복지관은 최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주민 30여 명과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한 지역주민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어 참 행복 한 하루였다”며 인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동방이노베이션, 저소득층에 라면 50박스 기부

정읍시 북면농공단지에 위치한 (유)동방이노베이션(대표 김준식)은 지난 26일 덕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 물품은 덕천면 경로당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태경SBC(주), 군산시 노숙자 위해 1,000만 원 쾌척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귀감

구암동행정복지센터는 태경SBC(주)가 노숙인 복지시설인 신애원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7일 밝혔다.

태경SBC(주)는 군산 산단에 위치하여 무기소재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혁신, 소통, 사회적 책임”을 핵심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

반 성장을 추구해왔다.

이번 기부 역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태경SBC(주)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이웃과의 상호 신뢰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기업사랑 도민회, 위기 청소년에 500만원 기부

교정청소년에 희망 전환기부

전북 기업사랑 도민회는 27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과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송전중고등학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눔에 앞장서 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 도민회 회원들께 감사의 린다”면서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많은 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힐링축제 개최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은 지난 24일 청소년들에게 쉽고 여유를 주는 ‘남원아이’(namwon ‘i’)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청소년 힐링 축제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문집당근마켓, 버튼플레이 대회, 쿼킬클래스,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졌다.

서대현 관장은 “남원의 청소년

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의집이 청소년 활동의 장이자, 쉽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은 단순한 활동 공간을 넘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중산신협, 취약계층에 여름김치 나눔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라양노)은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승현)에서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2번째 진행하는 ‘여름김치 나눔행사’는 전주중산신협이 해당 복지관에 김장 비용 전액을 후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전주중산신협 임직원을 비롯해 화산동성당 및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5명이

함께했다. 또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계층 70가구에 열무김치, 알갈이김치, 갯알김치를 전달했다.

라양노 이사장은 “제철 채소로 담긴 여름김치는 무더위로 인한 식욕저하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전주중산신협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안부인사를 전해 매우 보람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안천면지사협, 취약계층 어르신에 행복꾸러미 전달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세대에 ‘안천맞춤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꾸러미는 외관상 착용 표시가 나지 않는 요실금 팬티를 비롯해 미끄럼방지 양말, 어르신 케어용 물티슈 등으로 구성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시 흥남동지사협,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진정권·공공위원장 신재식, 이하 ‘지사협’)가 지난 26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15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사협이 추진중인 ‘나도 걸어보자! 실버카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실버카 지원사업은 제동 장치가 있는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편의를 도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내도록 돕는 사업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춘향라이온스클럽 등, 300명 어르신께 약밥 전달

남원춘향라이온스클럽(회장:박명숙)과 산우가족사랑봉사단(회장:이민섭)은 지난 26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온기 나눔 마음 약밥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약밥을 준비해, 관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어르신 300명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비운동 철저

산행 전 정보수집

음주 절대 금지

지정된 길로만 걷기

긴급 구조는 119

야간산행 자제

〈一事一言〉



지금은 투표의 시간
이돈승
(재)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을 맞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3 계엄 사태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어서인지 광주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지 16주기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는 추모하며 투표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킬 뻔 했던 퇴행적인 망상에 빠져 계엄을 자행한 무도한 대통령과 비호세력의 파렴치한행태를 지켜보았고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이뤄낸 탄핵으로 조기대선 국면을 맞이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국민들을 애태우고 마음 졸이게 하고 답답함과 분노, 온갖 감정이 교차하던 극적 반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고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 이어 6월 3일 본 투표가 예정되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추억하며

어 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척 특별하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었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언제든지 도전받고 위협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영구집권을 꿈꾼 내란세력의 발호를 뿌리째 뽑아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전염병처럼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잠먹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세력들이 숙주로 삼아 기생하며 살아가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개개인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집단적 의사표시로 드러나는 결과는 실로 무시무시하다. 나의 한 표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 같아도 개개인의 투표성향이 모은 선거총량의 합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끼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투표이다. 내가 투표장에 가서 기표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만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좋아하는 것이 정치적 기득권세력이고 이들은 국민들이 자주적 의사표현 없이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확고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뽑고 싶은 대통령이 누구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것 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낡고 조잡한 편견과 유언비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갈라치기하며 우리 사회를 잠먹는

세력이 남아있다면 이들을 혁파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AI와 첨단산업기술에 뒤처지지 않는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 대응에 동참하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경제를 살려나가고, 앞선 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12.3 계엄 사태가 야기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힘겹게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민의를 모아 탄핵결정을 이끌어 낸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지켜보던 인고의 시간을 지나, 이제 계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내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권리와 의사를 표시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지금은 투표의 시간이다. 다시 한번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억하며 대한민국 투표사에 길이남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감동이 6월 3일 밤에 있어야만 한다.

사설

전북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지로 거듭나길

전북자치도가 서해안권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추적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인간힘을 쏟고 있다.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해양레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체류형 콘텐츠와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레저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전북은 이미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고군산군도의 스카이워크는 전북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으며 말도 등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공간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산 무녀도의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창, 부안, 김제 등지에도 해양관광 테마파크, 마리나 항만, 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더해 콘텐츠 개발에서도 전북은 적극적이다. 순창, 군산 등지에서 운영 중인 카누·카약·요트 등 해양레포츠 교육, 고창과 군산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명사십리 해변의 승마와 바다 캠핑축제, 만돌 갯벌체험장의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특히 관광·힐링·체험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들은 장기 체류를 유도해 지역상권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

한 마리나 항만 개발이다. 부안 공항에서 추진되는 995억원 규모의 마리나계류시설 개발은 전북 해양레저산업의 민간협력 모델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유치 추진,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TF구성 등은 해양문화·과학·교육의 융합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개발 사업이 단순히 외형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참여, 계절성 극복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또한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한 광역 연계 전략과 함께,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전북만의 해양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의 전략적 홍보 활동도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 크루즈관광, 해양힐링, 해양레포츠 등 세부 분야별로 특화된 클러스터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서해안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 자연환경과의 공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전북이 현실상부한 서해안권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거룩한 사랑 / 박노해

성은 피과능이다
어린 시절 방학때마다
서울서 고학하던 형님이
하악해져 내려오면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압타를 잠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 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피를 묻혀 가며
맛난 닭죽을 끓이셨다

나는 칼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면서 침을 꿀꺽 이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서울 달동네 단칸방 시절에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음
여유가 없었다
막일 다녀오신 어머님은 지친
그 몸으로 시장에 나가 잠깐
아재를 다듬어 주고
시래깃감을 얻어와
김치를 담고 국을 끓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퍼런 배추 겉잎으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김치와 국을
맛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피야 한다는 걸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시를 발표해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안겼다.

문화재열전



위도 관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정치국방, 관아
-지정일- 1982년 8월 30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12 (진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변치 않는 신념, 바른소식을 전달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고창군 청년군수

고창군, 청년이 군수다 미래를 꿈꾼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본격 시동

전북 고창군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 일자리, 문화, 참여 등 전방위적인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의 슬기로운 청년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들여다 봤다. / 편집자주

◆ 청년이 살고 싶은 고창, ‘청년친화도시 고창’ 조성 본격화

전북 고창군이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고창군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참여, 문화 등 4대 분야의 25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도의 기획과 실행,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모델이 돋보이는 가운데, ‘사람 중심 청년친화도시 고창’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 청년과 함께 설계한 정책...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고창군은 2025년 청년친화도시 공식 지정을 목표로 조례 정비와 제도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각 분야 부서장이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통해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

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 청년 삶을 담은 정책 추진

〈주거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

고창군은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주택, 미활용 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10~15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쇠퇴한 터미널을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약 2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 기업과 청년이 함께 웃는 구조〉

고창군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법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청년취업지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 인센티브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최대

주거·일자리·참여·문화 등

4대 분야 25개 청년정책 추진

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청년정책위원회·소통간담회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 -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창업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1년 차에는 시제품 제작, 초기 사업과 비용 1500만원, 2년 차에는 마케팅, 임차료 등 정착 기반 조성 자금 35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고창군은 청년농 유치와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이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 - 청년1번가,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창업과 문화의 중심지〉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년1번가’는 고창군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이다’(고창읍 모양성 마을)와 연계해 로컬벤처, 문화기획 등 다양한 정책이 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창군 성과공유회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고수면 원더 청년단체에서 전통 용기, 씨간장 등 고창 용기를 활용한 장 담그기 체험과 씨유산 헤리티지(씨간

장 발효 과정), 숲마루 헤리티지(숲속놀이터에서 자연체험), 족보 헤리티지(가족과 공동체 유산기록)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 청년이 정책을 만든다 - 아이디어 공모와 소통간담회

고창군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청년포털 앱을 통해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소통간담회’에서는 청년의 삶과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부서 간 공유를 통해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구조 확립

고창군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정책구조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각종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1번가 등 거점공간은 창업·문화·네트워크 중심의 청년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 점검과 개선을 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고, 스스로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창군의 역할”이라며, “청년정책을 고창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아,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청년 스마트농업의 첫걸음, 고창형 스마트팜과 함께!

2024. 9. 26. (목) 13:00 성송면 판정리 40일원